

다섯해만의 흥겨운 '책잔치' 한마당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90서울도서전 盛了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90서울도서전이 '책의 날'인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985년 이후 장소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단해오다가 5년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660여사가 참여, 20여만권의 책이 전시됐는데, 주축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의 집계에 의하면 모두 23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역량이 총집결된 사상 최대의 도서축제로 치러진 이번 전시회는 특히 도서·잡지에 한정하던 기존의 평면적 전시형태를 지양, 첨단화로 치닫는 출판계동향을 반영해 음향도서나 전자출판물까지 전시물들을 확대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모두 91개사에 이르는 社別전시대를 통해 우리출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편, '잡지광장' '전자출판플라자' '음향도서전시대' 등을 마련하여 도서전시의 입체화를 꾀했다.

특별기획전도 비교적 다채롭게 마련됐는데, 구한말 이후 최근까지의 국·검인정교과서를 시대별·과목별로 분류전시한 '한국교과서역사전', 북한의 교과서와 국민교양도서 등을 한데 모은 '북한출판물전', 중국에서 발행된 우리말 출판물전, 인기저자 107인이 자전한 '자신의 책 환권전', 아마추어 주부작가들의 '엄마가 쓰고 그린 그림책과 원화전',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점자책 전시 등이 많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전시기간동안 매일 2~3명의 저자·작가들을 초청하여 가진 '저자와의 대화마당'도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보였는데, 그동안 대중앞에 나서지 않던 이해인수녀를 비롯해 고은, 이청준, 문국진, 이원복, 윤희길, 이영탁, 고원정, 이영희, 정채봉, 김원석, 김용운, 박영환, 윤후명, 조정래씨 등이 이 저자와의 대화마당에 나와 창작과 저술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5년만에 다시 열린 도서전을 성공리에 마친 출현의 권병일회장은 "90년대를 시작하면서 도서전 하나 치러내지 못한다면 출판계 전체의 수치가 될 것이란 생각으로 임했다"면서 앞으로 이 서울도서전을 매년 개최하는 한편, 94년에는 국제전의 규모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동전시회 개막일인 11일에는 출현이



지난달 11일부터 1주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던 90서울도서전 전시장 전경.

제정한 4대독서상 시상식이 있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모범독서운동가상은 올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독서감상문 당선자(최우수상) : 강은진(충남 당진 부강국교) 박서연(대전 가양중학교) 주신숙(경기 안성여고) 박윤태(충남 부여) ▲우수새마을문고 : 광주 구룡새마을문고(회장 오승규) 서울 둔촌1동새마을문고(회장 남인숙) ▲모범장서사 : 신재을(서울 영동중학교장) 박세록(송촌전기 대표) 양태진(정부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서창교(평택 안일여중교 교사)

※ 관련기사 16~17면

후기산업사회 출판의 위상과 진로 문화부 주최 90문화발전 심포지움

90출판문화발전 심포지움이 지난달 16일 올림픽유스호텔에서 개최됐다.

문화부가 주최, 21세기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출판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본 이 세미나에서는 「후기산업사회와 출판의 지위」(민병덕 혜전전문대교수)를 비롯해 「컴퓨터와 출판시스템」(이기성 신구전문대교수), 「뉴미디어와 종이문화」(동아출판사 전산편집실 김홍식), 「전자서점의 구성과 도서유통양식」(전원재 외국어대교수) 등이 발표됐는데, 발표와 토론



문화부가 주최한 지난달 16일의 90출판문화발전 심포지움.

을 통해 21세기에 등장할 출판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거론됐다.

민병덕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1세기 출판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로 정보화사회, 지구형 기업시대의 도래, 고령화,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서비스화, 조직의 네트워크화 등을 꼽으면서 "정보사회는 경제적 실재이지 관념적 추상물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 출판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컴퓨터와 출판시스템」을 발표한 이기성교수는 "외국에선 벌써 컴퓨터책이 실용화단계

로 진입해 옥스퍼드사전은 종이책과 CD롬책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종이책을 읽는 대신 컴퓨터책을 읽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경우, "컴퓨터출판에 앞서 한글의 특성을 살린 조합형 한글코드 및 고유의 글자꼴 개발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홍식씨는 "뉴미디어가 각광받기 시작한다 해도 상당기간 종이는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종이매체와 뉴미디어의 상호보완에 따른 각매체의 역할조정이



한국도서목록전시회에 출품된 도서목록들.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원재교수는 "기존서점과 새로 출현하는 전자서점의 기능이 분화되어 독자의 욕구형태에 따른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전자서점의 기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관련기사 4면

경주서 대학출판부협회 정기세미나 개최

한국대학출판부협회(회장 계명대 권외무교수) 제9차 정기세미나 및 한·일 대학출판부 간담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개최됐다.

한·일 대학출판부협회의 회장 인사로 개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에서 강원대 출판부장 이광래교수가 「대학출판-2천년대를 위한 제언」을, 일본측에서는 中央대학 출판부장 히로시 다나카교수가 「일본대학출판부의 과제와 전망」을 각각 발표했는데, 특히 이광래교수의 경우 이제까지 교양교재 출판에만 안이하게 매달려온 대학출판부의 적극적인 활로개척에 많은 시사를 던지는 발표를 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 관련기사 5면.

조선시대 이래 각종 도서목록 전시 출판연구소, '한국도서목록전' 개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출판물의 서지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도서목록을 수집, 정리한 '한국도서목록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1주일간 교보문고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병익)가 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총 400종 563책의 도서목록이 선보였는데, 조선시대부터 1970년 사이에 발행된 우리나라 출판물이 수록된 도서목록의 원본을 출판자별, 발행연도별로 전시하는 한편,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외국도서목록 31종 41책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 철종 때의 필사본으로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의 장서목록 「春坊藏書總目」을 비롯해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우리나라 도서를 분류한 「名世叢考」, 불교경전목록인 「經典目錄」 등과 함께 일제시대에 작성된 「韓籍目錄稿本」 「조선총독부중추원목록」 등이 출판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 목록을 출판한 단체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 동국대도서관, 통문관, 호산방 등 9개 기관이며, 개인으로는 김종천(상명여대 교수), 안춘근(중앙대 신방대학원 교수), 윤병태(충남대 교수)씨 등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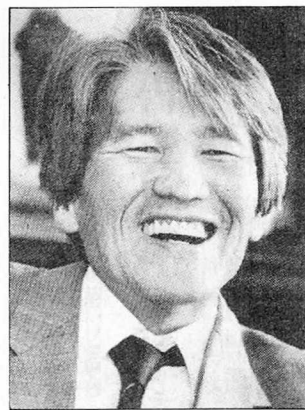
간행물윤리상 첫 수상자 발표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윤리성 확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출판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정한모)가 제정한 제1회 간행물윤리상 시상식이 지난달 12일 간행물윤리위 회의실에서 있었다.

공로, 저작, 편집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낸 이번 제1회 간행물윤리상은 청소년 대상의 도서·잡지·만화에 대한 매체감시와 선도활동에 기여한 서울YMCA 강남지회 출판물모니터클럽이 공로부문을, 한국전통사회의 교육을 현대이론으로 접목시킨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의 저자 유안진씨(서울대교수)가 저작부문을, '출판편집총서' 및 '글 더 잘쓰기 총서' 등을 기획출판하고 있는 이경훈씨(보성사 대표)가 편집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 관련기사 22면.

박맹호씨,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박맹호씨.

제22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문화부문 수상자로 박맹호씨(민음사 대표)가 선정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훈장 및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자를 발표했는데, 출판인으로는 민영빈(시사영어사 대표), 김봉규(삼성출판사 대표)씨가 화관문화훈장을, 김덕기(중앙출판사 대표), 김춘근(정한출판사 대표)씨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전국순회독서강연회 개최

문화행사의 중앙집중현상을 지양, 지방으로도 확산시켜 지방문화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제1회 전국순회독서강연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서유통개선회의(회장 이호림) 주최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린다. 다음은 동강연회의 일정.(괄호안은 장소와 강사)

▲10월20일(대구 시민회관, 황경식·조성기) ▲10월21일(대전 기독교연합봉사관, 엄정식·윤후명) ▲10월27일(부산 이사벨여고 강당, 이명현·최인훈·박영한) ▲10월28일

(마산 건축사회관, 이한구·전상국) ▲11월3일(광주 태평양화학 강당, 김광수·문순태) ▲11월4일(청주 신세계백화점 강당, 김태길·이균영)

교보문고 제정 제2회 '북디자인상' 발표 대상에 이론과실천 편집부

교보문고 제정 '북디자인상' 제2회 대상 수상자로 「정치언론」 「언론비판」 「대중매체비평의 기초」를 펴낸 이론과실천사 편집부가 선정, 발표됐다.

책의 편집디자인과 제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책문화를 일구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래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번 북디자인상 공모는 모두 102개사에서 298종이 출품된 가운데 백승철(우먼센스 부사장), 이대일(명지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이중환(서울신문 논설위원), 조영제(서울대 미대 교수), 정병규(북디자이너)씨의 심사로 대상(상금2백만원) 1명, 우수상(상금 1백만원) 2명, 장려상(상금 20만원) 10명 및 특별상(상금 50만원) 1명을 선정, 발표했는데,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단조의 미학이 호들갑스러운 출판디자인의 대세에 구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상작에 대한 심사평.

전체적으로는 조용함과 정밀한 디자인을 통해 요란함과 자극적인 것만으로 독자를 유인하겠다는 단순한 의도가 지양된 대신, 표지중심의 디자인과 신국판에 집중된 판형의 선택 등은 여전한 우리 북디자인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총평이었다.

다음은 수상작 및 수상자 명단.

▲대상 : 「언론비판」 외(편집부, 이론과실천) ▲우수상 : 「재미있는 수학여행」(편집부, 김영사) 「한국전통문양집」(편집부, 안그라픽스) ▲장려상 : 「숨은 꽃」(편집부, 가톨릭출판사) 외 9점 ▲특별상 :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정병규, 삼진기획)

한편,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교보문고 이벤트홀에서 전시됐다.